

舍岩鍼灸學의 運用에 依한 病證診斷의 適否判別法

金 東 匹

一. 序 論

韓方醫學에 있어서의 診斷은 望,聞,問,切의 四診을 通하여 治療의 根據를 確認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結果를 病名으로 限定하고 거기에 適應할 韓方의 治療方法을 選別하는 風潮가 現今의 主流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韓方에 있어서의 治療의 수단은 韓方藥의 投與,鍼灸의 施術,氣功,按摩等으로 廣範하여 病名의 確認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음이 또한 現況이기도 하다.

本人은 病名의 確認만을 가지고서는 各種의 治療에 대처할 수가 없어서 적어도 同一 診斷下에 韓方藥의 投與와 鍼灸施術이 가능한 診斷방법의 개발에 專念하여 現今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1967年 以前에는 舍岩鍼灸學의 研究家였던 故 李在元先生을 스승으로 모시고 同年 2月 18日 李先生死後에는 本人單獨으로 그 前後를 통하여 約 45萬名의 患者를 診療하면서 以下에 論述하는 所見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二. 本 論

1. 舍岩鍼灸學의 體系化와 그 由來

距今 約 420年前 韓國의 李氏朝鮮朝 光海君代에 生存한 僧醫로 推測되며 舍岩이란 號를 가진 本人의 努力에 의하여 體系化 되었고 그의 著書 “舍岩道人鍼灸要訣”이 轉寫되어 現在까지 韓國의 各地에 散在하고 있는 것이다.

그 理論의 根據는 [黃帝內經 靈樞]에 明示되어 있는 五行의 母子關係 調節法인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의 治療原則과 다시 거기에 더하여 相剋關係에 대하여도 虛則抑其官하고 實則補其 讐하는 革新的인 大原則을 併用하는 具體的이고 有效無比한 體系를 完備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舍岩鍼灸學은 韓國獨特의 傳統鍼灸學이다.

2. 韓方醫學의 病證診斷法

本人은 1980年代 初期에 “韓方의 病證小考”란 小論文을 발표한 바 있으며 韓方의 診斷法인 望,聞,問,切 등을 通하여 먼저 病證을 精確하게

* 瑞林韓醫院 院長

把握하고 治療中에는 能動的으로 그 進展과 變化에 對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病證의 診斷은 먼저 四診을 通하여 疾病의 症狀等과 現代醫學에 있어서의 病理檢査의 所見등을 歸納分類함으로써 六經病人가 衛氣營血과 三焦의 病人가 或은 五臟六腑의 病人가를 類型化하고 한편 病名을 참고하면서 다음으로 患者의 固有體質(四象人論)에 對照하고 또한 當時의 五運六氣를 參酌하면서 最終的으로는 診斷情報를 綜合하여 陰陽,表裏,寒熱,虛實의 八綱을 基準尺度로 삼아 分析함으로써 陽衰陰盛 脾系虛證等の 病證을 확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特記할 것은 八綱에 對照하여 病證을 要約時에는 四診中에서도 脈診과 固有의 體質을 比較的 重要視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表裏 陰陽은 病位를 主로 하면서 또한 陰陽과 寒熱 虛實은 病質을 表示하는 概念이기도 하다.

또한 脈診이란 王叔和의 [脈訣]과 같이 浮,沈,遲,數등으로 脈의 體象을 主로 하여 診斷의 資料로 삼을 수도 있지만은 寒熱 虛實등의 病質을 규명함에는 左右六脈의 強弱을 比較할 수 있는 比較脈診法이 더욱 有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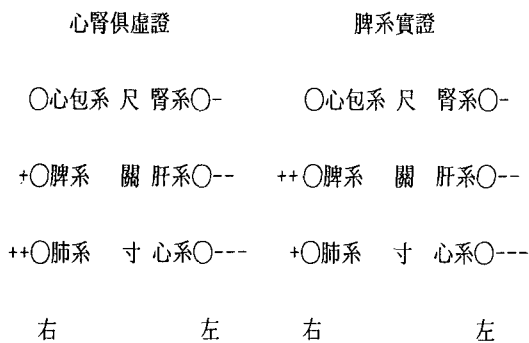
특히 이제까지의 成書나 學說로서는 陰陽盛衰의 判別이 至難하여 韓方醫療人의 難題이기도 하였으나 그것이 脈診의 結果 六脈이 俱沈이면 陽衰陰盛 反대로 六脈이 俱浮時에는 陰衰陽盛으로 判別할 수 있었고 또한 患者의 대다수는 六脈이 俱沈이었으며 精誠을 다한 治療後에 비로소 脈浮緩으로 好轉하는 것이 常例였다.

그리고 六脈相互의 強弱을 比較運用하는 比較脈診法은 許浚著의 “東醫寶鑑” 中風門 調治豫

防門中에도 그 端緒가 되는 記載가 있는 것이다.

比較脈診으로 우선 臟腑의 虛實判別法을 要約 記述하면

A. 먼저 六脈中 우선 左右의 關脈을 比較하여 右關이 左關보다 強할 時에는 心腎俱虛證 또는 脾系實證으로 推理할 수 있는 것이니 이때에 右寸(肺系脈)과 右關(脾系脈)의 強弱을 比較하여 肺系脈이 脾系脈보다 더 強하면 心腎俱虛證이며 反대로 脾系脈이 肺系脈보다 더 強하면 脾系實證으로 判別할 수 있는 것이니 圖示하면 아래와 같다.



다음으로 左右의 關脈을 比較하여 左關脈이 右關脈보다 強할 時에는 脾系虛證 또는 肝系實證으로 推理하고 이때의 判別과정은 左寸(心系脈)과 左尺(腎系脈)을 比較하여 腎系脈이 心系脈보다 약간 強하면 脾系虛證으로 그와 反대로 心系脈이 腎系脈보다 약간 強하면 肝系實證으로 判斷하는 것이니 이를 圖示하면 下圖와 같다.

脾系虛證

肝系實證

○心包系 尺 腎系○+

○心包系 尺 腎系○-

-○脾系 關 肝系○++

○脾系 關 肝系○++

○肺系 寸 心系○-

-○肺系 寸 心系○+

右 左 右 左

人體의 生命力은 無數한 方向에로 表現되는 것 같아도 要約하면 上記의 四類型으로 限定되는 것이었으며 千態萬象인양 解釋되는 疾病들도 그 治療 또한 위의 四類型을 中心으로 하여 變化運用함으로써 正氣 즉 生命力이 正常으로 調節되면 邪氣 즉 疾病은 自退하고 만다는 것이 韓醫學의 生理觀과 病理觀의 基幹이 되는 것이다.

B. 그리고 「黃帝內經 靈樞의 第八卷 72 通天篇」에 提示되어 있는 五態人說이 그 端緒가 되어 있고 後代에 내려와서 距今 約 100年前인 우리 나라 光緒 甲午(西紀1894年) 四月 十三日에 韓國의 위대한 韓醫學者 東武 李濟馬先生께서 東醫壽世保元을 著述함으로써 人類의 四象人論을 定立하여 韓醫學의 診斷과 治療에 劃期的인 貢獻을 남기셨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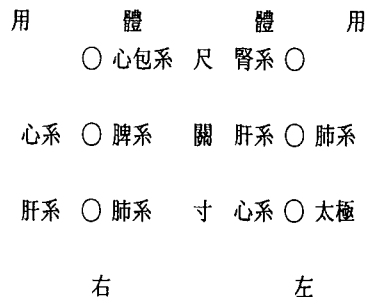
그러나 그후 우리 나라의 國運의 衰退로 韓醫學이 抹殺되는 悲運속에 36年을 지나면서 東醫壽世保元을 돌보는 자 없었고 또한 光復後는 漢文學의 衰退로 그 귀중한 書籍을 解讀조차 못하다가 그후 1967年 3月 15日에 韓醫師이며 周易의 研究家였던 故 韓東錫 先生의 勞苦로 註釋版이 發刊되기에 이르러 뜻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再照明케 되었던 것이다.

筆者는 1965年度에 某種用務로 빈번히 서울에 上京하였는데 當時 서울의 韓醫學界에서는 言必稱 四象人論이었고 本人은 當時 舍岩鍼灸學의 研究에 專念中이었으며 舍岩鍼灸學에 根源的으로 缺如되어 있던 診斷學을 體系化中이었는데 그 當時에 杏林書院에서 發刊된 四象人關係冊子를 參考하여 본즉 韓方診斷學의 體系化에 도움이 될 것으로 判斷하였던 것이며 그 후에는 四象人論의 研究도 疏忽히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東醫壽世保元을 耽讀하여 보아도 臟腑의 大小 陰陽 表裏 寒熱만을 強調하였을 뿐 虛實의 概念은 明記되지 않았으며 本人이 후일 韓醫學의 診斷學 體系化가 進展되면서 東武先生이 四象人論에서 虛實에 관하여 明示하지 않았던 意圖를 斟酌하기에 이르렀으니 그것은 後人이 臟腑의 大小와 虛實의 概念을 同一視하여 混同할 것을 憂慮하여 臟腑의 體用을 明示함에 그치고 虛實이란 病質의 語句를 省略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다.

臟腑의 體用圖



上記圖에 提示된 내용을 虛實에 결부시켜 解釋하면 半陰半陽인 少陽人과 少陰人은 體대로 虛實을 執證,運用할 것이니 少陽人은 脾系實證으로 少陰人은 脾系虛證으로 診斷됨이 妥當한 것이다.

그러나 純陰 純陽인 太陰人과 太陽人의 診斷,執證은 用을 基準으로 하여 執證되어야 하니 太陰人의 肝大肺小는 肺實肝虛로 轉倒解釋되어야 비로소 診療가 可能함이며 太陽人의 肺大肝小는 肝實肺虛로 執證되어야 비로소 治療가 有效한 것이다.

이 體用의 運用轉倒와 거기에 隨應하는 診斷과 治療의 妥當性은 筆者가 長久한 세월 수많은 患者를 診療하면서 累積한 醫療經驗과 東醫壽世保元의 體用의 理論을 결부 解釋한 結果이니 즉 太陰人의 病證인 血虛氣實은 心腎俱虛證에 相當하고 太陽人의 病證인 氣虛風熱盛은 肝系實證으로 執證 治療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氣實에는 2種이 있으니 少陽人의 氣實은 燥盛을 表示함이며 太陰人의 氣實은 濕盛을 表示하고 있는 것이니 燥와 濕의 區分이 治療의 要諦가 되는 것이다.

C. 또한 420年前에 體系화된 舍岩鍼灸學과 100年前에 體系화된 四象人論과는 相互有關하고 舍岩鍼灸學의 運用은 四象人論의 이해로 한층 용이하고 正確하여 지는 것이니 그 相關關係를 圖示하면 아래와 같다.

그리고 東醫壽世保元에는 鍼灸治方은 제외되어 있고 藥物治方만을 收錄하였으나 東武자신이 卷末에 기록한 바와 같이 “少陰 少陽人論則略得詳備나 太陰 太陽人論則僅成簡約이니 盖經

虛實證의 舍岩針 治方과 四象人病證의 調節方

病 證	陰陽盛衰	治 方	四象人
心腎俱虛證	陽衰陰盛	臨泣 陷谷 補 太白 瀉	太陰人
	陰衰陽盛	大敦 隱白 補 三里 瀉	
脾系實證	陽衰陰盛	臨泣 陷谷 補 經渠 商丘 瀉	少陽人
	陰衰陽盛	大敦 隱白 補 商陽 厲兌 瀉	
脾系虛證	陽衰陰盛	陽谷 解谿 補 大敦 隱白 瀉	少陰人
	陰衰陽盛	少府 大都 補 臨泣 陷谷 瀉	
肝系實證	陽衰陰盛	商陽 厥陰 補 少府 行間 瀉	太陽人
	陰衰陽盛	經渠 中封 補 陽谷 陽輔 瀉	

※ 寒熱補瀉 治方은 追後 報告하기로 함

驗이 未遍而精力이 已憊故也니라”라고 한 바와 같이 太陰人과 太陽人의 治方들이 現時에는 再考될 바가 數多하고 특히 太陽人에 대한 治方은 外感 腰脊病에 五茄皮壯脊湯과 內觸小腸病에 獼猴桃植腸湯의 2方に 그쳤으니 여기에는 李濟馬先生의 生存時代象과 한사람의 연구에는 限界性이 있었음을 後學들은 이해하고 民族醫學에 속하는 四象人論을 完備大成함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기에 東醫壽世保元에 수록된 處方들은 뜻있는 韓醫學徒들의 補完修正에 미루고 筆者가 經驗하고 推定하는 각 病證別 및 四象人別 韓藥治方을 列舉하여 보기로 한다.

治方 摘要	適應系列別藥治方 (湯證에 依據選別 投與)
心腎俱虛證 (太陰人)	基本方 ; 四物湯, 平胃散 外感 ; 麻黃湯, 香蘇散, 人蔘敗毒散, 不換金正氣散 內傷 ; 四物湯, 平胃散, 五積散, 加味溫膽湯, 逍遙散, 蟠蔥散 疎風活血湯, 行濕流氣散, 香砂平胃散
脾系實證 (少陽人)	基本方 ; 二陳湯, 六味地黃湯 外感 ; 麻黃湯, 小柴胡湯, 荊防地黃湯, 蔘胡芍藥湯 內傷 ; 二陳湯, 涼隔散, 六味地黃湯, 正傳加味二陳湯, 導痰湯 四七湯, 大柴胡湯, 理氣祛風散, 當歸承氣湯, 半夏瀉心湯 加味四七湯, 內消散, 增味二陳湯
脾系虛證 (少陰人)	基本方 ; 桂枝湯, 四君子湯 外感 ; 桂枝湯, 柴胡桂枝乾薑湯, 小青龍湯 內傷 ; 桂枝湯, 四君子湯, 人蔘養胃湯, 補中益氣湯, 保和湯, 歸脾湯 桂枝加龍骨牡蠣湯, 理中湯, 眞武湯, 附子理中湯, 星香正氣散 香砂六君子湯
肝系實證 (太陽人)	基本方 ; 葛根湯, 白虎湯 外感 ; 葛根湯, 香葛湯, 十神湯, 柴葛解肌湯 內傷 ; 葛根湯, 升麻葛根湯, 柴葛解肌湯, 葛根黃蓮黃芩湯, 六鬱湯 加味逍遙散, 防風通聖散

D. 四象人의 體質診斷法

東武 李濟馬先生의 著書인 東醫壽世保元의 卷末에 “萬室之邑에 一人이陶則器不足也오 百家之村에 一人이 醫則活人이 不足也리니 必廣明醫學하야 家家知醫하며 人人知病然後에 可以壽世保元이니라”

라고 記述된 바와 같이 四象人論이 이해되고 普遍化되지만 하면 韓方醫學이 中興되어 人類의 保健向上에 크게 寄與할 것은 明若觀火이나 최근까지 그 體質鑑別이 不分明하여 오다가 1994年에 이르러 釜山의 金根永, 金東匹, 孔泰泳의 3者의 合作으로 金根永式四象體質 診斷法을 完成 1994年 8月12日에 韓國의 韓醫學界에 발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며 이 방식이야말로 簡便 正確한 診斷法이니 參考하시기 바라는 바이

다.

이 快學는 앞으로 四象人의 體質診斷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韓醫學의 診斷을 客觀正確화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의 傳統醫學의 하나인 舍岩鍼灸學을 普遍化 시키기도 할 것이다.

以上에 例示한 陽衰陰盛 脾系虛證에 適應할 수 있는 處方中의 一例는 人蔘養胃湯이며 陰陽의 盛衰가 轉倒된 陰衰陽盛 脾系虛證에는 歸脾湯도 適應하는 등 患者가 顯示하는 病症狀의 主症과 客症(湯證)에 따라 韓方藥 處方의 選別은 多분히 餘裕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舍岩鍼灸의 處方에 있어서는 陰陽의 盛衰에 隨應하여 陽衰陰盛 脾系虛證에는 陽谷解谿(陽經의 火穴)補, 大敦 隱白(陰經의 木穴)瀉로 取穴施術하여야 하며 陰衰陽盛 脾系虛證에

는 少府 大都(陰經의 火穴)補, 臨泣 陷谷(陽經의 木穴)瀉로 限定되는 것이다.

3. 舍岩針施術에 依한 病證診斷의 適否 判別法

病證診斷에 對應하는 舍岩針 取穴의 限定性과 針施術의 速效性에 留意하여 約 45萬名에 達하는 患者를 診療하면서 銳意反復研究의 結果 病證의 診斷適否의 判別에 確信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 方法은 診斷의 結果 病證이 陽衰陰盛 肝系 實證이면 當然히 商陽 竅陰(陽經의 金穴)補, 少府 行間(陰經의 火穴)瀉로 取穴되는 것이다.

그 때에 刺針施術도 좋고 또는 金屬棒의 尖端으로 按壓함도 좋으며 補穴에는 補로 瀉穴에는 瀉의 手技로 暫時施術하는 것이다.

그 결과 患者의 脈象이 緩和(浮) 好轉되고 脈搏數가 正常值로 近接하며 또는 聽診器로 心音의 變動을 聽取하여 正常으로 近接하면 이 診斷이 適正하다고 判別하는 것이다.

그리고 韓方藥의 治療에 있어서는 診斷된 病證을 前提로 하여 處方의 選別은 主症과 客症을 參考함으로써 葛根君劑의 葛根湯, 葛根黃蓮黃芩湯, 升麻葛根湯, 葛根解肌湯, 柴葛解肌湯 또는 加味逍遙散, 六鬱湯, 防風通聖散 등의 適應系列處方中에서 選別投與하고 또 舍岩鍼灸의 施術은 陰陽의 盛衰에 留意하면서 施術하는 등으로 同一病證下에 韓方治療는 多岐化되어 治療의 有效性은 最大限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하여튼 古今을 通하여 韓方의 診斷은 그 統一性이 缺如 되어서 施行錯誤가 茶飯事로 難題였고 자칫하면 名人藝에 속하는 領域이기도 하

였다.

이제 本人은 病證의 診斷과 그 適否를 즉시 判別할 수 있는 方法을 韓方醫學界에 提示하는 것이다.

三. 結 論

以上을 論述하면서 本人이 遺憾으로 느끼는 것은 病證의 診斷과 또한 그 適否의 判別方法이 자칫하면 客觀性을 缺如한다는 事實이다.

또한 韓國獨特의 傳統鍼灸學인 舍岩鍼灸學의 全貌를 詳述할 수 있는 機會를 갖지 못하였다 는 것이다.

診斷의 適否判別方法의 客觀化에 努力하면서 各種의 診斷機器에 着眼運用하여 보기는 하였으나 人體의 生命現象을 的確히 표시하여 주는 機器는 드물어서 苦難의 連續이었다.

最後로 韓方醫學 발전을 위하여 銳意專念하는 諸氏의 助言과 協力을 얻어서 韓方診斷의 統一化와 客觀化에 希望을 걸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1. 舍岩道人鍼灸要訣 / 舍岩著
2. 舍岩陰陽五行鍼灸總論 / 李在元編著
3. 舍岩陰陽五行鍼灸秘訣 / 李在元編著
4. 增補弁證錄 / 陳敬之著
5. 黃帝鍼灸甲乙經 / 皇甫謐撰
6. 校正圖註難經脈訣 / 王叔和原本

- 7. 中國韓方醫學概論 / 南京中醫學院 編著
- 8. 東醫寶鑑 / 許 浚著
- 9. 韓方診療의 實際 / 大塚敬節外 二人共著
- 10. 東醫壽世保元註釋 / 韓東錫著
- 11. 黃帝內經 靈樞

***病證 沁腎俱虛證**

舍岩針治方

陽衰陰盛 臨泣 陷谷 補 太白 瀉

陰衰陽盛 大敦 隱白 補 三里 瀉

韓方藥基本方

四物湯 平胃散

太陰人(肝系大 肺系小)

꾸준하고 沈着해서 무슨 일이든 한번 시작한 일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쉽게 拋棄하지 않고 結末을 짓지 않으면 못건디는 類型이다.

몸가짐에 威風이 있고 正直하며 每事에 慎重하게 行動하며 믿음직스럽다. 그러나 慎重함을 지나쳐서 새로운 일을 해보지도 않고 겁부터 내거나 變化를 싫어해서 現在의 狀態에 安住하려는 傾向이 많다.

太陰人은 평소에 땀이 많고 땀을 흘려도 전혀 거부함을 느끼지 않는다.

땀을 내려고 해도 땀이 안 나오면 健康에 이상이 있다는 徵兆로 볼 수 있다.

有益한 飲食

消化機能이 豊富한 飲食이나 맛이 중탁한 飲食이 좋다.

밀, 콘, 울무, 수수, 들깨, 고구마, 쇠고기, 우유, 버터, 치즈, 간유, 명란, 밤, 잣, 호도, 은행, 배, 매실, 살구, 자두, 무우, 도라지, 더덕, 연근, 토란, 고사리, 마, 버섯, 김, 미역, 다시마, 설탕, 땅콩

해로운 飲食

닭고기, 달걀, 돼지고기, 배추, 사과, 커피, 겨자, 후추

少陰人(脾系大 腎系小)

積極성과 敏捷性を 갖추어서 事務에 能하다. 活動的이고 率直 淡泊하며 義俠心이 强하다.

人情이 많아서 利害打算에 關心을 두지 않는 性格이다.

每事에 始作은 잘하지만 마무리가 不足하고 爽중을 잘 느끼며 持久力과 끈기가 不足한 短點이 있다.

恒常 일을 벌이기만하고 마무리를 잘 맺지 못한다. 벌여놓은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그대로 放置하고 다른 일을 벌이기 때문에 恒常 마음 속에 두려움과 걱정거리를 갖게되고 이로 인해 健康을 그르치게 되는 境遇가 많다.

少陰人은 健康에 以上이 생기면 便秘가 甚해지는 型이다.

有益한 飲食

서늘하고 生冷한 飲食과 과일, 채소 및 海物類가 좋다.

보리, 팥, 녹두, 바나나, 딸기, 호박, 가지, 당근, 배추, 상치, 우엉, 수박, 참외, 돼지고기, 계란, 생굴, 전복, 새우, 가자미, 복어, 잉어, 가물치, 얼음, 병과류, 참기름, 오이, 해삼, 우렁이 등

해로운 飲食

닭고기, 쇠고기, 우유, 꿀, 땅콩, 개고기 등

*** 病證 脾系實證**

舍岩針治方

陽衰陰盛 臨泣 陷谷 補 經渠 商丘 瀉

陽衰陰盛 大敦 隱白 補 商陽 侶兌 瀉

韓方藥基本方

六味地黃湯 二陳湯

少陰人(腎系大 脾系小)

마음 씩씩이가 細心하고 부드러워서 周圍에 사람들을 모으는데 有能한 社交的인 性格이다. 잔재주가 많고 어떤 일을 하든 미지 작은 구석까지 챙기는 細密한 性格이다. 判斷이 빠르고 생각이 緻密하며 組織的이다. 그러나 內性的이고 수줍음이 많아서 自己 意見을 잘 表現하지 않으며 消極的이어서 推進力이 弱하다. 그리고 細心함이 지나쳐서 조그만 일어도 조바심하고 不安해 한다.

이런 不安定한 마음이 健康에도 나쁜 影響을 미치게 된다. 少陰人은 健康에 異常이 오면 제일 먼저 食慾이 떨어지고 消化狀態가 나빠지는 傾向이 많다.

有益한 飲食

따뜻한 飲食과 辛味한 조미료를 많이 攝取하는 것이 좋다.

참쌀, 차조, 감자, 벌꿀, 닭, 노루, 토끼, 개, 염소, 양, 꿩, 장어, 쏘가리, 은어, 명태, 멸치, 조기, 도미, 민어, 미꾸라지, 사과, 귤, 토마토, 복숭아, 시금치, 양배추, 미나리, 파, 마늘, 생강,

고추, 겨자, 쪽갓, 당근, 아욱, 부추, 냉이, 감자

해로운 飲食

메밀, 쇠고기, 우유, 돼지고기, 배, 수박, 참외, 오이, 고구마, 밤, 팥, 호도, 녹두, 보리, 맥주, 빙과류

*** 病證 脾系虛證**

舍岩針治法

陽衰陰盛 陽谷 解谿 補 大敦 隱白 瀉

陰衰陽盛 小府 大都 補 臨泣 陷谷 瀉

韓方藥基本方

桂枝湯 四君子湯

太陽人(脾系大 肝系小)

人間關係에 있어서 相對方을 어려워하거나 꺼려하지 않고 積極的이어서 남과 쉽게 사귀고 社會的 關係에 有能하다. 周圍의 干涉을 싫어하며 恒常 앞으로 나아갈줄만 알지 後退할 줄 모르는 猪突的인 性格이다.

積極性, 進就性, 果斷性 있는 長點이 있으나 獨善的이고 計劃性이 적고 緻密하지 못한 短點이 있다.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躁急해지고 화를 잘 낸다.

이러한 躁急性을 自制하지 못하고 餘裕를 잃으면 健康을 그르치게 된다.

太陽人은 平素 小便量이 많으며 健康에 異常이 생기면 小便부터 不便해지는 傾向이 있다.

有益한 飲食

淡泊 소담한 飲食과 海物類가 좋다.

모밀, 냉면, 손채나물, 포도, 머루, 다래, 감,

앵두, 모과, 송화가루, 새우, 조개류, 굴, 게, 문
어, 붕어, 솔잎, 오징어 등

해로운 飲食

쇠고기, 설탕, 무우, 조기

*** 病證 肝系實證**

舍岩針治法

陽衰陰盛 商陽 竅陰 補 少府 行間 瀉

陰衰陽盛 經渠 中封 補 陽谷 陽輔 瀉

韓方藥基本方

葛根湯 白虎湯